

화강 스토리텔링

▶ 북한에서 발원해 DMZ를 관통하는 화강(花江)



남한지역 화강 최상류 용양보

화강(남대천)은 DMZ 넘어 북한 땅인 옛 김화군 북방지역에서 발원한다.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검문소에서 동쪽 방향으로 500m 정도 가면 신 암정교가 나오는데 바로 그 밑이 화강이다. 이곳에서 옛 금강산 전철 철길(현재 농업용 수로로 이용)을 따라 북쪽으로 1.5km 가면 철책이 나오고 우거진 숲속에 커다란 보(湫)가 있다. 이 보가 DMZ에서 흘러나오는 화강을 막아 인근지역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용양보인데 크기는 소규모 댐 수준으로 저수량이 상당하다. 용양보는 옛날 금강산 가던 철길의 철교 교각을 그대로 이용해 사이사이를 콘크리트로 막아서 만든 보로 남한지역 화강의 최상류이다. 용양보 안쪽에는 군인들이 DMZ 경계근무를 위해 화강을 건너다니던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의 풍상 앞에 상판이 덩성덩성 떨어져 나갔고 지지대 줄만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용양보는 극소수 군인 외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원시상태의 생태계가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강물 속은 각종 물고기가 가득하고 수변은 야생동식물이 우글거리며 강물 위로는 희귀철새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다. 용양보 오른쪽 화강 동쪽 숲속은 밀림에 가까울 정도로 울창하고 보 아래는 한길이 넘는 갈대가 너무 무성해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늪인지 분간이 안 된다. 화강 최상류에는 인기척은 전혀 없고 물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는데 고요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고 긴장감이 감돈다. 철책을 지키는 초병 눈초리는 날카로운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얀 백로가 강물을 가로질러 파란 하늘 위로 유유자적 날아간다.



용양보 아래쪽 화강 상류지역

▶ 계웅산과 천불산 사이 평지를 흐르는 화강

용양보 바로 아래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수초가 우거지고 나무가 울창해 멀리는 보이



승리전망대에서 바라본 DMZ 화강 최상류

지 않고 직선거리 40~50m 앞만 겨우 보일 뿐이다. 좌우로는 산이 가로막고 있어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만 북동쪽 저 멀리 산등성이에 잘 지어진 건물이 하나 눈에 띄는데 마현리 마을 앞에 있는 승리전망대이다. 승리전망대에 가면 북한과 DMZ 내 화강의 물줄기를 어렵잖이나마 볼 수 있다. 현재 지도상에 나와 있는 화강 상류지역 지명은 DMZ 남방한계선 지역이 김화읍 용양리이고 그 위가 근동면 광삼리, 신촌리, 하소리, 교전리,

가현리, 아침리, 백양리로 이어진다. 용양보에서 하류 쪽으로 700~800m 내려오면 마현천이 합류하고 그 아래쪽에 신세보가 있고 엇그제 내린 비로 보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강변에는 갈대와 수풀이 무성하고 나무들이 울창해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보 아래쪽은 흐르는 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 키보다도 높은 수풀이 무성해 버려진 황무지 같다. 저 멀리 수풀 사이로 일제강점기 때 놓인 암정교의 무너진 콘크리트 교각이 보인다. 당시 김화와 화천, 금성 등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암정교는 답교놀이와 투석전 같은 민속놀이가 행해졌던 지역의 명소이다. 암정교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서쪽 바로 위로 높게 계웅산이 자리하고 동쪽으로 천불산이 가로막고 있다. 남동쪽으로 저 멀리 대성산이 우뚝 솟아 있고 첩첩으로 한북정맥 산등성이들이 이어진다. 양쪽으로 내리뻗은 산맥 사이 평야지대 한 가운데를 화강이 흐르고 있다. 암정교를 지난 화강은 남쪽으로 흘러 지뢰지역을 통과하고 생창리 마을 옆으로 접근한다.

▶ 민통선 철조망과 지뢰밭에 가로막힌 화강

일반인들이 군인들의 제지를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화강의 최북단 지역은 생창리 마을 인근 지역이다. 이곳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강폭이 좁고 수량이 너무 적어 그냥 조그만 하천 같다. 가뭄이 심한 봄에는 갈대를 비롯한 수풀들만 무성하고 강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강물이 최전방 지뢰지역과 맞붙어 있어 마치 울창한 숲속에서 강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것 같다. 화강은 김화와 철원의 평지를 흐르는 강이라서 예로부터 범람이 잦았고 주변에 농경지를 발달시켰다. 옛 김화군의 경제는



민통선과 지뢰지역에 가로막힌 화강

그해 화강 유역 농사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좌우되었다. 해마다 큰 비가 내리면 수해 피해가 커져서 지금처럼 화강 양쪽 변에 튼튼한 제방이 쌓아지게 되었다. 제방 위에 생긴 길은 자연스럽게 외부관광객의 화강 생태탐방로이자 지역주민들의 산책로가 되었다. 화강 생태탐방로는 DMZ 인근 생창리 최전방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 청정만큼은 우리나라 그 어느 곳보다도 뛰어나다. 도보 여행은 물론이고 자전거 여행에도 이만한 최적의 조건은 없을 것이다.

▶ 옛 김화군 중심지를 관통하며 흐르는 화강



화강 상류와 생창리 마을 그리고 뒷산

최전방 화강 제방 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북쪽으로는 계룡산이 눈에 들어오고 산 정상에 있는 한국군 OP도 선명하게 보인다. 계룡산 남서쪽 평탄지대는 옛 김화군 군청소재지로서 각급 관공서가 자리했고 금강산전기철도가 지나던 읍내리 시내다.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되었고 휴전선과 DMZ로 60년간 통제되는 바람에 이젠 흔적조차 없다. 제방 길 동쪽에는 지뢰지역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이 가로막

고 있고, 동남쪽에는 분지 위에 논과 밭이 펼쳐지고 원예작물 재배 비닐하우스가 끝없이 이어진다. 저 멀리로 근남면 마현리에 위치한 천불산과 대성산의 위용이 남다르다. 남쪽으로는 서면 와수리까지 김화지역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인 운장분지가 발달해있고 그 사이로 화강이 흐른다. 화강 건너편인 서쪽에는 남북방향으로 1km에 걸쳐서 생창리 마을이 이어지고 그 뒤편 산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마을 뒤편 야트막한 산 일대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맞서 조선근왕병이 용전분투했던 장소로 용인 광교산 전투와 더불어 유일한 승전으로 전해지는 김화대첩(화강백전) 현장이다.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홍명구 공과 대승을 거둔 유림 장군의 충절을 기리는 충렬사가 전투현장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뒤편 산속에는 당시 주민들이 피신해 항거했던 성재산성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 국난극복 역사의 생생한 현장 생창리(生昌里)

생창리는 고구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김화군의 중심지였다. 생창리는 국도 5호선과 43호선이 만나고 금강산전기철도가 지나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물류교통의 요충지였다. 주민들은 6·25전쟁과 휴전선(민통선) 때문에 마을을 떠났다가 1970년 10월 30일 재향군인 100세대가 재건촌을 건설하여 입주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97가구 350여명 주민들이 넉넉지 못한 논밭을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최근에는



민북마을로 조성되어 입주한 생창리

토마토와 오이, 파프리카 등 원예작물 하우스농사가 활발해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다. 생창리는 병자호란 때 청(淸)나라 군대에 맞서 용전분투했던 홍명구공과 유림장군의 충절이 깃들어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대가인 겸재 정선이 금강산 가던 길에 그들의 충절을 기리고자 화강백전을 남겼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여러 마을이 병합되어 생창리로 개칭되었고, 1953년 수복되면서 옛 김화군 대신 철원군 김화읍으로 바뀌었다. 다른

민북마을과 마찬가지로 이농현상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하다. 생창리 마을 주변에는 성재산성, 어수정, 전골총 등 역사문화유산이 많은데 주민들은 이런 역사적 전통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끊어진 금강산전철이 연결되면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 갈대와 수풀이 우거진 원시상태의 화강

생창리 마을 옆 화강은 강바닥이 온통 수풀로 짙게 차있다. 최전방지역의 강이고 북에서 흘러내려온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해 원시상태 모습 그대로다. 강물에 사는 물고기나 그것을 먹이로 하는 동물 특히 새들에게는 천혜의 서식조건이다. 생창리 마을에서 200~300m 하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강이 왼쪽으로 꺾이고 강폭이 다소 넓어지면서 강물다운 모습을 갖춘다. 강의 오른쪽인 서쪽 방면에는 5~7m 이르는 바위암석이 보이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파릇파릇 푸른 끼가 올라오고 있다. 그 뒤편으로는 김화 시내로 향하는 도로가 뚫려있어 오가는 차량들이 제법 많으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어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강의 왼쪽인 동쪽 편에는 갈대를 비롯한 수풀과 버드나무를 비롯한 잡목들이 울창해 헤집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 깊지 않고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에는 여름철새인 백로와 왜가리 등이 한가로이 노닐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갈대 수풀이 무성한 생창리 화강

▶ 갯가지 여름철새들이 평화롭게 노니는 화강



여름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노니는 모습

제방을 따라 하류 쪽으로 좀 더 가면 강 폭이 40~50m에 이를 정도로 넓어지고 강물이 커다랗게 S자 모양을 그리며 흘러가 제법 강다운 티가 난다. 강물이 많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아담하게 돌아나가는 모습이 정겹다. 강 양옆으로 가지런히 제방이 쌓아져 있고 강물이 끼이는 부분 안쪽에는 모래사장도 있고 갈대숲이 무성해 새들이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강폭이 넓고 강물이 가득하나 강바닥

이 워낙 평평하고 경사가 없어 강물은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강물이 일렁이고 내리쬐는 햇빛이 반사되어 물의 흐름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아래쪽에 신보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더욱 흐름이 멎어있는 것 같다. 강 건너편 강바닥의 모래가 흰히 들여다보이는 얇은 곳에서는 여름철새들이 서너 마리 씩 강물에 몸을 맡기고 두둥실 떠내려가고 있다. 이곳 상류지역은 농부들 이외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워낙 없는 곳이라 사소한 인기척에도 새들이 몹시 경계한다. 사람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면 노닐던 곳에서 쩍싸게 날라 올라 다시 40~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위를 떠다닌다. 제방 길 왼쪽인 동쪽에는 분지가 끝없이 펼쳐지고 비닐하우스가 연이어 있어 내리쬐는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다.

▶ 신보(新湫)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너무 다른 화강

신보가 있는 곳에서 북쪽을 쳐다보면 전방에 계웅산이 우뚝 솟아 있고 조금 좌측으로 북녘 땅 오성산이 어렴풋이 보인다. 깨끗하게 정렬된 강둑 제방이 유난히 튼튼해 보이고 강물의 잔물결이 빛에 반사되어 아른아른하다. 강 건너편의 갈대와 수초 및 나무들은 강물에 투영되어 그 키가 더 커 보인다. 야트막한 산에는 옹기종기 산소들이 모여 있고 이제 막 봄기운이 퍼진 나무들은 일제히 연녹색 잎들이 돋아나고



신보에 가득 찬 강물과 북쪽 상류 풍광

있다. 그 뒤편에는 높은 산등성이 라인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어 화강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 같다. 신보에 모여진 강물은 양수기로 퍼 올려서 운장분지의 원예하우스로 보내진다. 화강에는 용양보, 신세보, 신보, 옥보, 도리평보, 만경보, 청양보, 토성보, 도창보 등 9개의 보가 있다. 이들은 모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상류에서 강물을 가두고 내려 보내지 않아 하류지역은 너무 메말라서 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태계 교란현상도 벌어진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자연의 이치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강물을 막고 있는 보 때문에 물고기들도 꼼짝달짝 못한다. 물론 어도를 만들어놨지만 봄 갈수기에는 어도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아 물고기가 진입조차 할 수 없다. 보 아래쪽 강바닥은 마치 황무지 풀밭 같다. 강물이 내려가는 길목이 있긴 하지만 그 폭이 5m를 넘지 못하고 수량도 극히 적다. 누런빛 갈대나 수초는 강이라기보다는 습지처럼 황량해 보인다.

▶ 김화군 최고의 곡창지대인 운장분지의 변모



사곡천 합류지점 근처 운장분지

사곡배수장을 지나면 사곡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는데 강폭이 매우 넓어지고 잘 정돈된 강 제방에는 두 줄로 복자기 나무가 심어져 있어 싱그러움을 더한다. 화강의 지류인 사곡천은 복주산과 복계산 인근 산골짜기와 잠곡댐에서 시작되어 근남면 잠곡리와 옥단리를 거치고 서면 와수5리 수유동을 지나 화강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강물의 양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 주변에는 부유물이나 퇴적물이 거의 없고 뽕얇고 깨끗한 자갈과 모래가 널리 깔려있다. 사람이 드물고 오염이 안 된 최전방 들판을 흐르는 하천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화강 동쪽으로는 여전히 운장분지가 이어지고 원예작물 비닐하우스가 끝없이 펼쳐진다. 강원도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철원군과 옛 김화군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집하되어 타 지역으로 팔려나갔다고 한다. 철원평야 및 운장·청양분지의 농업생산력은 단연 한탄강과 화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곡천 합수지점에서 300~400m 내려가면 옥보가 나온다. 강물은 그리 많지 않고 양수기가 강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다. 그 뒤 경사진 곳에 운장석불이 서있는데 오래전부터 김화주민들 수호신 역할을 해오는 석불이다. 석불이 있는 곳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면 김화군의 너른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서면 와수리 지역 까지도 조망할 수 있다.

▶ 버드나무와 갈대가 무성한 야생동물의 낙원

운장석불 근처에서 하류 쪽으로 약 200~300m 구간은 강바닥에 유난히 갈대가 많고 수풀이 무성하다. 그 사이를 흐르는 강물이 이따금씩 눈에 띄는데 여름철새들이 신나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무성한 수풀이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물가 수초에는 물고기들이 많아 새들에게는 이만한 천국이 없다. 무성한 수풀이 있는 구간을 지나면



옥보 근처 화강과 뒷산 운장석불

다시 조그만 보가 나타난다. 옥보 밑 양수장보가 있는 곳에는 각종 여름철새들이 많은데 그 중 큰 새인 백로가 특히 몇 마리씩 있어 하얀 색깔이 연녹색 수풀과 대비가 된다. 보 주변의 강물은 잔잔하고 깊어서 다리가 긴 새들은 물고기 잡기가 용이하다. 보 아래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얇은 물고랑에 갇혀있는 온갖 물고기들은 여름철새들의 식량창고나 다름없다. 그 아래로는 200~300m 가량 버드나무가 울창

하게 심어진 구간이 나타난다. 아직 다른 초목들은 녹색 빛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봄의 전령사답게 버드나무는 줄기마다 새순들이 잔뜩 돋아났다. 5m 이상 자란 버드나무들이 일렬로 서있고 수풀과 갈대가 우거져 강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저수지 습지가 연상될 정도여서 물고기와 일반 야생동물들에게는 좋은 쉼터가 될 것 같다.

▶ 소나무와 버드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화강

갈대와 수풀이 무성한 구간을 지나면 강폭이 70~80m에 이를 정도로 넓어지고 강바닥에는 자갈과 모래가 짝 깔려있다. 강의 오른쪽인 서쪽으로 강물이 몰려서 흐르고 강의 동쪽 면은 약간 지대가 높으면서 자갈과 모래로 짝 차있다.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바글바글 물이 끓는 소리같이 들린다. 자갈이 깔린 얇은 강물에는 건지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곳은 시내에서 멀지 않아 지역주민들 친목행사나 여름철 천렵



화강교 상류지역

장소로 애용되며 외지인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하기도 좋다. 강가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있어 눈길이 간다. 경사진 곳을 흘러간 강물은 약간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내 큰 강으로 변모한다. 이곳에서 500m 아래쪽에 커다란 도리평보가 있어 폭이 60~70m에 이르는 넓은 강에 강물이 짝 차있고 강물 색깔도 시퍼렇고 제법 깊어 보인다. 강 주변 산등성이가 그대로 강물에 투영되고 푸른 소나무 색깔은 강물 색깔까지 추가되어 더 짙어 보인다. 강 옆에 드문드문 서있는 버드나무는 푸른 강물과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한 폭의 동양화 같다. 강 제방 왼쪽으로 신별지구로 불리는 서면 와수리 넓은 들이 자리한다. 푸른 강물 위로 김화읍 학사리와 근남면 사곡리를 연결하는 화강교가 지나간다. 다리 밑 강물은 보에 막혀 완전히 고여 있어 강이라기보다는 호수 같다. 깊은 강물 위를 한가로이 노닐던 백로가 까마귀에 쫓

겨서 날아가는데 마치 영역 싸움이라도 하는 것 같다. 한편 저 멀리서 들리는 빠꾸기 소리와 다른 여름철새들의 지저귀는 넓은 강에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이곳은 전체 화강 중에서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와수천을 만나며 더욱 활기가 넘치는 화강



도리평보에 가득찬 강물

도리평보를 지나면 강물은 S자를 그리며 학포교로 흘러간다. 바닥에는 갈대숲과 버드나무를 비롯한 잡목들이 우거져있어 강물은 보이지 않고 얼핏 보면 숲이 우거진 황무지 같다. 강둑 위에서 동쪽으로 바로 앞에 화강문화센터, 그 뒤에는 김화중·고교, 멀리 서면 와수리 시내가 보인다. 와수리 시내 뒤로 보이는 산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깃대봉이다. 남쪽 아래로 김화읍 학사리와 서면 와수리를 잇는

학포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학포교 바로 밑에서 화강은 와수천과 만나는데 합수지점이 커다란 Y자 모형이다. 와수천은 상해봉과 각흘봉 골짜기에서 발원해 자등리와 와수리를 흐르는데 오랜 세월 서면 주민들 젖줄 역할을 했다. 와수천도 장마가 지기만 하면 범람해 하천 양옆으로 튼튼하게 제방이 쌓여있고 제방 위에는 주민들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합수지점에 설치된 커다란 만경보는 강을 건너다니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강폭은 100m에 이를 정도로 더욱 넓어지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강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 만경보에는 물이 가득 차있는 것 같지만 흘러넘치는 물이 없어 어도를 비롯한 물줄기는 메말라 버렸다. 보 위와 아래 지역이 너무 차이가 나서 강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학포교, 와수천 합수지, 만경보

▶ 소나무와 백사장이 아름다웠던 옛 김화군민들의 쉼터

강물은 학포교 밑 합수지점과 만경보를 넘어 김화교 밑 화강 쉬리공원 일대로 향한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철원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화강 다슬기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미 철원군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강바닥이 고르게 잘 정돈되어 있고 물의 깊이도 무릎이 잠길 정도로 적당하며 강변 양쪽으로 산책로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



김화교 위쪽 화강 다슬기 축제장

어 외부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기에 최적이다. 최근에는 쉬리생태공원 안에 대규모 캠핑장이 설치되어 있어 300개 이상의 텐트도 동시에 칠 수 있다. 강가 모래사장에서 화강 다슬기행사장을 바라보면 탁 트인 시야와 강물에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 그리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에 마음마저 땡 뚫린다. 바람에 일렁이는 강물이 강변에 부딪히면 마치 커다란 호숫가에 앉아있는 기분이다. 강가에 조성된 ‘장수나들길’

의 데크와 난간이 길 뒷산의 푸른 소나무와 멋진 조화를 이뤄 걸어보고 싶은 충동이 절로 난다. 강물의 깊이도 깊이지만 뒤 배경 산의 푸름 때문에 강물은 더 파래보이고 강물은 속이 흰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다. 맑은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그만 바위나 자갈 틈에 오물오물 다슬기가 술하게 깔려있다. 다슬기뿐만이 아니라 피라미, 모래무지, 버들치 등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있어 낚시를 하는 이들도 많다. 예로부터 조선후기나 일제강점기에 김화교 근처 강변에는 소나무가 울창하고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옛 김화군 주민들의 천렵장소로 유명하였다고 전한다. 지금 김화교 북단 바로 옆에 약 20여m 우뚝 솟아 있는 소나무가 그 당시 울창했던 나무 중 한 그루다.

▶ 철원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 ‘화강 다슬기축제’

김화교 교각 위에는 물고기와 다슬기 모양 대형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쉼터도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다슬기축제가 열리는 한여름 밤에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김화교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고 있으면 더위는 싹 가시고 황홀한 기분마저 든다. 김화교 위·아래에는 100m가 넘는 강폭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두 군데나 놓여있어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체험이고 관광이다. 징검다리가 이



제8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공연장

어진 모양이 S자 모양 같기도 하고 태극문양의 중심선 같아 색다른 의미가 느껴진다. 축제 때는 징검다리도 이용하지 않고 다슬기를 잡고자 아예 바지를 걷고 강물 속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화강 다슬기축제는 해마다 8월 초순경 개최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총망라되어 다양한 공연과 발표회, 전시회 등이 열린다. 2014년 제8회 다슬기축제는 “가족과 장병이 함께, 즐겁고 시원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육군 제3사단 공동 주최로 열려 20만 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

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황금다슬기를 잡아라!” 코너는 연일 매진이었고 그 외에 고기맨손잡기, 탱크 헬기 타보기 등 다양한 체험과 지역특산물 먹거리들이 등장해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다슬기축제장 안에 있는 쉬리공원은 공연장, 체험장, 수영장, 눈썰매장 등이 두루 갖추어진 생태탐방공원이다. 축제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민들과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와 휴식공간으로 이용된다. 공원 옆 산등성이에 저격능선전투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이곳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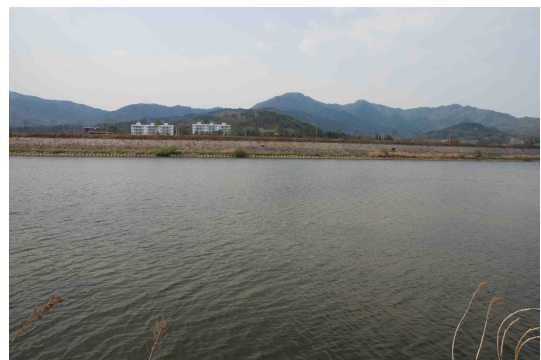
▶ 철새들의 먹이활동이 활발한 김화교 아래 화강



김화교 아래 화강 여울

김화교 아래쪽으로 평평하고 얇은 강물이 300여m 이상 펼쳐져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다슬기도 잡고 물고기 낚시를 즐긴다. 강물이 잔잔하게 여울져 흘러가고 자갈밭과 모래밭이 드넓게 발달해 있으니 사람들이 없는 곳은 백로 왜가리 등 여름철새들의 천국이다. 몇 마리씩 군데군데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열심히 강물을 주시하고 물고기가 지나가면 부리로 콕콕 쫓는다. 다슬기축제장을 벗어나 화강

제방 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가면 다목적구장이 나타나고 좀 더 멀리에는 김화농공단지가 보인다.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다목적구장은 지역주민들 체육활동의 장이 되고 특히 조기축구회원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제방 길 경사면에는 봄을 대표하는 짙은 분홍색의 철쭉꽃이 화사하게 피어있어 탄성이 절로 난다. 그 옆 논에는 이제 막 모내기를 하기 위해 물을 가득 채워 넣고 써래질까지 마쳐 놓았다. 가지런히 정돈된 논이 햇빛이 반사되고 바람결에 일렁이니 여기에 또 다른 화강이 있는 듯하다. 이곳의 강폭도 여전히 넓어 거의 100m에 이르고 강바닥에는 자갈보다 하얀 모래사장이 발달해있다. 강 건너편에는 도창리로 향하는 길이 눈에 들어오고 학포리 마을이 길게 늘어서 있다. 김화초등학교를 지나면 군부대 막사와 군관사가 연이어 나타나고 뒤편에는 사기막골이라 불리는 옛 마을과 산등성이가 계속 이어진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강폭이 넓어지고 강물의 양이 많아지며 깊이도 더 깊어진다. 물론 강 양옆으로 쌓아진 제방은 튼튼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아래쪽에 커다란 청양보가 있어 시퍼런 물이 가득하고 물가에는 수초가 무성하다. 드넓



청양보에 가득한 강물과 사기막골 마을

은 깊은 강물 한가운데 물오리 한 쌍이 유유자적 평화롭게 떠있다. 강 건너편 제방 너머로는 청양4리(장림동) 군 관사아파트 고층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DMZ 인근의 성재산과 오성산이 보인다.

▶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하는 “화강 느티나무 길”



청양보 아래쪽 화강 느티나무 길

청양보 아래 쪽 제방 길은 별도로 “화강 느티나무 길”이라고 불린다. 2009년 4월 철원군이 청양리 주민들 산책로 및 외부관광객 탐방로로 만들고자 제방 길 약 4.2km 구간에 692개의 느티나무를 식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제방 길을 따라 쪽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의 키는 현재 2~3m 정도 밖에는 되지 않으나 향후 2~3년 뒤에는 이 느티나무가 화강의 명소가 될 것 같다. 벌써 느티나무 그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화강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시골과 농촌 풍경 자체에서 느끼는 쾌감과 행복을 보통 ‘어메니티(Amenity)’라고 하는데 화강 변의 이 느티나무 길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어메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보 아래에는 강 물줄기 폭이 줄어들고 갈대와 수풀, 버드나무와 잡목들이 무성하다. 수초 무성한 수변구역을 지나면 다시 자갈밭이 드러난다. 물의 양이 적다 보니 강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화강은 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풍광이 강바닥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강물을 주변 농지에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특징을 살린 강변 조성과 개발이 향후 필요하다.

▶ 화강에서 가장 깊고 넓은 토성보

좀 더 하류로 내려가면 갈대가 무성하고 수풀이 가득한 수변구역이 이어진다. 물가에 수초가 가득해 민물고기가 서식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다. 내려갈수록 서서히 강물의 폭이 넓어지고 물 색깔이 더 짙어지는 것을 보니 상당한 깊이가 느껴진다. 강폭이 꽤 넓은 큰 강임에도 불구하고 평평한 청양분지 한가운데를 흐르다 보니 강물의 흐름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고요한 강물에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바람은 없는데



토성보에 가득 찬 강물

햇빛이 반사되어 물결이 반짝인다. 강변에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너무 울창해 사람의 접근은 전혀 불가능하다. 높이가 2~3m에 이르는 나무들이 틈도 없이 뽕뽕이 들어차있어 아마존 밀림 같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들에게는 그들만의 든든한 보금자리이다. 제방 길 왼쪽으로 청양3리 수무정이라는 마을 표지석이 있고 지경리로 향하는 옛 길과 새로 난 4차선 대로가 한꺼번에 보인다. 저 멀리보이는 산과 하늘의 무게구름까지 강물에 투영될 정도로 강물이 시퍼렇고 깊어 보인다. 강물의 수평면이 거의 미동도 하지 않는 지점에 다다르니 토성보가 나타난다. 보에 담긴 물이 너무 많아 자세를 수그리고 눈높이를 물막이 보에 낮춰 북쪽 상류를 바라보면 댐에 와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토성보 아래쪽에는 수풀이 무성한 잡초 밭이 무척 넓게 퍼져있고 강물의 폭은 다시 좁아진다.

▶ 철원군민 추억의 천렵장소 장수대교 밑 화강



장수대교(청양리~도창리)

제방 길 왼쪽으로는 아담하게 청양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로 저 멀리 청양3리에서 도창리나 학사리로 건너가는 장수대교가 보인다. 장수대교 밑에는 강물이 아주 적고 바닥을 드러낸 자갈과 모래사장이 많고 그 위에 갖가지 잡초들이 무성하다. 원래 다리 밑은 어디나 마을주민들의 피서지이거나 휴식처이다. 천연의 그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근처에서는 예로부터 장어와 쏘가리 등 대형 민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다. 그리고 백사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철원군민 40~50대 들에게 청양리(청아리) 개울은 여름철 천렵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예전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밭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 더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최근에는 주목을 덜 받는다. ‘화강 느티나무 길’ 제방은 멀리 토성리와 도창리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제방 길에 표시된 두 갈래 흙길이 마치 철도 길이 놓여있는 것 같다. 보의 아래 부분이라 강물이 많이 줄어있고 군데군데 모래사장과 잡초둔덕들이 많이 눈에 띈다. 물이 거의 없는 얇은 개울에 백로와 물오리들이 한가롭게 먹이활동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띌면 극도로 경계하며 장소 옮길 궁리를 한다.

▶ 1996년 대규모 수해를 극복하고 새롭게 일군 마을

강의 동쪽에 있는 청양3리 마을은 1996년 7월 대규모 수해 때 수몰되거나 파괴되어 완전히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다. 마을의 집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마을 한가운데 채소 키우는 하우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일부 주민들은 수해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기존 터전을 떠나 다른 마을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화강 건너편 장림동에 세워진 청양6리 마을이다. 그리고 얼마 전 대규모 군인관사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인구 유입이 급증해 청양7리가 또다시 분가했다. 마을의 소멸과 탄생은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자체가 주민들의 역사이다. 청양3리 마을 옆 화강은 강물의 양이 적고 바닥이 드러난 채 자갈과 모래가 많이 눈



청양3리 마을 전경

에 띈다. 강물은 구불구불 이리저리 물길을 내고 강이라기보다 조그만 개울처럼 흐른다. 물이 거의 없는 웅덩이나 자갈밭에서 백로와 물오리가 여유 있게 물고기를 사냥한다. 군데군데 수풀이 초원지대처럼 깔려있고 작은 수목들이 우거져 있다. 좀 더 하류로 내려가면 모래사장이 발달해있고 군데군데 연못처럼 강물이 고여 있다. 20~30년 전 이곳은 철원군에서 제일가는 모래와 자갈이 생산되었던 골재채취장이었다. 길고 큰 모래사장은 동해바다 해변 가에 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넓었다. 제방 근처에 조팝나무가 하얗게 피어있는데 조그맣고 하얀 꽃 뭉치가 마치 팝콘 튀겨놓은 것 같다.

▶ 아프리카 초원지대 같은 남대천교 바로 위



강 한가운데 숲이 우거진 섬

모래사장이 있는 구간을 지나면 강 물줄기는 두 갈래로 나뉘고 사이에 거대한 섬이 만들어져있다. 섬에는 갈대가 짙어 바람에 누런 물결이 일고 중간 중간 푸른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어 아프리카 초원지대 같다. 파란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 강변 제방에서 섬으로 들어가기는 여의치 않다. 강물은 하류 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잔물결이 일고 햇빛에 반사되니 눈이 부신다. 백로 한 마리가 강물 속 물

고기를 잡기위해 목을 길게 빼고 살금살금 움직인다. 그 앞에서는 5마리 물오리가 떼를 지어 이동하는데 자세히 보니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움직이고 있다. 청양3리와 달리 이곳은 제방 길과 마을이 1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광활한 논밭이 펼쳐져 있다. 오랜 옛날 지금같이 제방이 없을 때 해마다 큰비가 오면 화강이 범람하여 만들어 놓은 평야지대이다. 김화 지역에서 이곳 토질이 가장 비옥하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농작물이 생산된다. 수풀이 무성한 섬 지대와 정글 같은 늪지대를 통과하면 토성리에서 도창리로 넘어가는 남대천교에 다다른다. 섬 모양 늪지대는 물고

기는 물론 여름철새와 조그만 초식동물 등 야생동물 집합소다. 남대천교에서 상류 쪽으로 약 1km 구간 전체가 온통 초목이 가득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이사이를 화강이 굽이쳐 뚫고 나와 남대천교 아래에서 다시 한줄기로 합쳐진다.

▶ 화강이 굽이쳐 돌아나가는 명당마을 토성리

남대천교를 지나면 화강은 크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강폭은 더욱 넓어진다. 큰 홍수가 나면 강물이 범람하고 그 반경은 자연스럽게 더 넓어지는 것 같다. 강 제방 너머에는 토성리 마을이 있고 그 뒤로 덕령산이 턱 버티고 있다. 토성리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풍수지리상 명당자리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형세를 하고 있다. 화강이 흘러들어와 마을 앞에서 휘돌아 나가고 북쪽 찬바람은 덕령산이



남대천교 아래쪽 화강과 토성리 마을

막아주니 이 이상 더 좋은 삶의 터전은 없다. 토성리 마을은 빗살무늬토기와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유적이 많이 발굴된 곳이라 철원군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추정된다. 이 역시 화강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때문에 탄생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옛날 임진강과 한탄강에서 배가 들어와 이곳에 닻을 내리고 물건을 하역했을 정도로 강물의 양이 많았다고 한다. 토성리는 DMZ 전방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6.25전쟁이 끝나고 수복된 뒤에는 이길리, 정연리, 유곡리, 도창리 등지로 들어가려는 실향민들의 중간 기착지였다. 체제 대결이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전방지역 황무지를 개발하고 농경지를 확대하고자 민복마을을 건설해 이주민들을 새롭게 입주시켰다.

▶ 다시 북쪽으로 흘러 한탄강과 합류하는 화강



토성리 전차방어벽과 도창리 화강

오른쪽으로 꺾이는 화강 제방에서 강물을 바라보면 더없이 넓어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인다. 모래사장을 끼고 도는 강물에 도창리 입구 산세 모양이 길게 투영되어 드리워져있다. 강물은 오른쪽으로 꺾여 일시적으로 북쪽으로 흐른다.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탄강과 만나는 당구미 합수지가 있다. 강의 오른쪽에 드넓은 모래톱이 발달해있고 저 멀리 도창리 마을이 보인다. 강 제방 길을 따라 하류 쪽으로

더 가다보면 북한군 남침 저지를 위한 콘크리트 방어벽이 나타난다. 강물의 한가운데에도 각진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여러 줄로 일제히 세워져 있는 것은 적의 탱크가 쳐들어올 때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대전차장애물 뒤로는 누런 갈대숲과 초목들이 우거져 있고 강물이 굽이를 이루며 한탄강으로 향하고 있다. 강 건너 도창리 마을 쪽 제방에 조팝나무가 100여 m 군락을 이루며 화려하게 피어있어 장관이다. 그 뒤로는 도창리 민들레마을 집들의 파란색 지붕들이 얼핏얼핏 보인다.